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회보 2013년 여름 제131호



이화동창

2013년 여름 제131호



| | | |
|----|-----------------|------------------------------------|
| 02 | • 여름의 시 | 한여름 밤 김행숙 |
| 03 | • 총동창회장 인사말 | 동창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 조종남 |
| 04 | • 동창의 날 행사 | 20만 동창의 한마음 축제 너도 나도 이화 사람 |
| 11 | • 2013 을해의 이화인 | 영애롭고 자랑스러운 동창 |
| 14 | • 특별기획 좌담회 | 총동창회를 통해 본 이화 정신 |
| 20 | •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 작년에 이어 성황리에 개최 |
| 27 | • 기획 트로 |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
| 30 | • 인터뷰 | 자랑스러운 이화인 장화인 |
| 32 | • 총동창회 소식 | |
| 36 | • 선교부 소식 | |
| 39 | • 대학 소식 | |
| 41 | • 과·학부 소식 | |
| 52 | • 국내·해외지회 소식 | |
| 61 | • 모교 소식 | |
| 64 | • 알아두면 유익해요 | 우울증 임원정 |
| 66 | • 기고문 |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물고기인 나의 'Ewha' 석정자 |
| 68 | • 동창 소식 | |
| 73 | • 동창이 펴낸 새 책 | |
| 74 | • 축하합니다 | 박정희 이배용 변영섭 서현숙 김자혜 한준희 양선희 윤화진 |
| 76 | • 대비자회 개최 | |



편집위원회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3년 여름 제131호 비매품 | 발행 · 2013년 7월 10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독일인쇄

© 2013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한여름 밤

김 행 숙

|교육심리 66

넓은 창으로 노을이 진다
차츰 어둠이 그물처럼 내려와
창 앞의 나무들을 가려도
여름밤의 열기는 쉬 식지 않는다
한낮의 지독한 폭염은
저녁엔 지쳐서 그늘이 된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
바로 저 별들 때문이라고
평계를 대보기도 하지만
어찌면 분꽃 때문일지도 몰라
저녁나절 뒤판을 환히 물들이며
어스름 곁에 서 있는 나를 향해
조용조용 말을 건네 오는 꽃
하늘에는 하나 둘 별이 눈을 뜨고
분꽃도 잠 못 들어 하는
별똥별이 길게 쏟아지는 밤
숲은 크게 일렁이고 있다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유리창 나비> <햇살 한 줌> <볼륨을 높일까요>
<여기는 타관>
기독교문학상, 이화문학상 수상



동창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사랑하는 동창 여러분!

또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장마 후 시작된 폭염 속에서도 저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총동창회의 큰 축제인 '동창의 날 행사'에서 만났던 여러 동창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생각하며 총동창회가 동창 여러분께 좀더 가깝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계획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이번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신 동창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는 참으로 가슴 벅찼습니다. 국내외 동창 여러분은 물론 존경하는 이사장님, 총장님, 고문님들을 모시고 뜻 깊고 다양한 행사를 치르게 되어 가슴 벅찼고 '이화' 안에 하나 된 우리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제 16대 총동창회장에 연임되면서 저는 20만 동창들과 모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비록 '명변하고 작은' 사람인 저이지만 훌륭한 전임 회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과 선후배 동창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랑과 화합, 열정'의 총동창회를 앞으로 2년 간 더욱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동창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창회100년사'를 보면 기라성 같은 동창들이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헌신했으며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학교 발전과 실력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 애쓰신 역대 총장님, 명예교수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이화를 사랑하시고 이화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이화의 역사가 '한국 여성의 선구자' 였다면 다음 한 세기는 '한국의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크고 빛나는 선두주자로 이화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이제 우리는 그 동안 각 분야에서 누리고 받았던 눈부신 성취를 사회에 되돌려 되갚음 하는 나눔의 지혜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배움과 나눔, 화합과 소통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맑고 새로운 이화 정신을 우리 동창들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동창회는 동창 스스로 동창회를 찾아오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할 것이며 9월 11일에 개최할 대바자회, 국내외 저희 방문 등을 통해 동창들께 더욱 다가가는 총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해 기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창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서슴없이 조언해주시고 저 역시 동창 여러분의 고견에 겸허히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힘껏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백발이 되어도 서로 이름 부르며 청춘의 얼굴을 떠올리며 앞선 세대의 지혜를 배우고 새 세대의 첨단 의식을 얻어갈 수 있는 이곳 총동창회 회원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교 창립 127주년 기념 2013 화보로 보는 동창의 날 행사

20만 동창의 한마음 축제 너도 나도 이화 사랑, 해가 갈수록 뜻깊어

모교 창립 127주년을 맞아 5월 31일(금)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주관으로 개최한 동창의 날 행사에 2천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참석한 해외와 지방 지회, 각 과 및 단과대학, 대학원 동창들은 <을해의 이화인 추대>, <졸업 30주년, 50주년 동창 재상봉>, <합창제>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며 흥겹게 하루를 보내고 이화 사랑을 재확인하였다.

총동창회 김효신(의학 84) 총무 사회로 진행한 기념식에서 조종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 16대 총동창회장 연임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봉사와 협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동창들을 섬기며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를 만들고 특히 젊은 동창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20만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조종남 총동창회장

이화 사랑에 동참해 주길” 호소하였다. 더불어 6월 1일 해외동창을 위한 행사가 있음을 알리며 모처럼 모교를 찾은 해외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을 비롯하여 장상, 이배용, 신인령 전 총장, 총동창회 고문 및 전 회장, 각 과와 단과대학 회장. 국내외 지회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를 축하하였고 참석 동창들 역시 오랜만에 찾은 모교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추억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특히 <재상봉 동창 행사>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은 1963년 졸업 동창 대표인 김순옥(약학 63) 동창의 옛 이화 캠퍼스 시절 이야기와 졸업 30주년 동창 대표 이난희(불문 83) 동창의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사로 참석 동창들의 마음을 20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두 동창의 대표 인사 후 총동창회는 재상봉 동창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모교 김선옥(법학 75) 총장은 ‘글로벌 이화’ 와 관련한 6대 비전사업을 삼세히 설명하여 참석 동창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졸업 30주년을 맞아 각 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1983년 졸업 동창들의 입장이 이경옥(체육 80)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강당 무대에 오른 40명의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임희영(무용 00) 동창의 축하 공연은 매년 열기를 더해가는 합창제와 함께 침석 동창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특히 금년 합창제는 예년에 비해 많은 팀이 출연하여 서로의 기량을 뽐내며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였다. 계명선(피아노 85) 음악부장의 진행으로 총 7개 팀(대전지회, 약학대학, 법과대학, 자연대학, 불어불문학과, 대구지회, 조형대학 순)이 독특한 의상과 다양한 곡을 선보였다. 심사하는 동안 음악대학 이음희와 체육대학 댄스연구회가 특별공연을 하여 침석 동창들이 큰 박수를 보냈으며 채문경(대학원 회장) 심사위원장의 심사 발표에는 장내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하였다.





1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 왼쪽부터 장상·신인령 전 총장, 윤후정 명예총장, 정명수 이사장, 이배용 전 총장 등. 2 총장 초청 오찬에 참석한 총동창회 고문 및 전 회장. 3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윤후정 명예총장과 김선옥 총장(오른쪽). 4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들(영문과 63). 5 오른쪽부터 재상봉 동창 대표 이난희(졸업 30주년), 김순옥(졸업 50주년) 동창.



법과대학, 불어불문학과, 대구지회, 조형대학이 소망상을, 자연대학이 미상, 대전지회가 선상, 약학대학이 진상을 수상하여 조종남 회장으로부터 각각 상금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해마다 호응도가 높아지는 김숙자(무용 64) 이대 명예교수의 '다함께 몸풀기'로 한 층 흥겨움을 더한 참석 동창들은 교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2014년 동창의 날을 기대하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동창의 날 행사를 마친 후 '올해의 이화인' 들은 모교 김선옥 총장께서 총장공관 들에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하여 5월의 향기를 가슴에 담고 30년 만에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합창제 참가 1 대전지회 2 악학대학 3 법과대학 4 자연대학 5 불어불문학과 6 대구지회 7 조형대학



1 음악대학 이음희의 특별 춤연 2 을해의 이화인을 위한 축하공연(임희영 동창)
3 체육대학 댄스 연구회의 특별 공연
4 김숙자 이대 명예교수와 함께 하는 다함께 몸풀기



2013 올해의 이화인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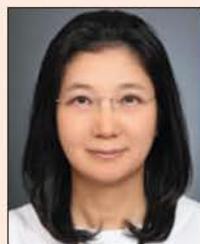
과명 가나다순



간호
변은경



경영
채경령



과교
유경희



교공
김나영



교육
기순신



국제사무
박지원



도예
이선정



특문
이선용



동양
한승연



무용
김현남



풀리
김혜영



법학
김영미



불문
장영은



사생
박금옥



사학
김광민



사회
정호정



생미
이현주



서양
채정수



설예
이현주



성악
김은경



수교
권오남



수학
김진미



식염
정조인



신방
이 현



실리
오인경



약학
안소영



영문
황재복



외교(불어)
전재성



외교(영어)
박현숙



유교
오연주



의직
김소현



의학
정호진



장미
김영주



정외
김경희



제약
임혜준



체육
전선혜



초교
유선경



피아노
정희선



한국음악
윤묘섭



화학
황복기

총동창회를 통해 본 이화정신, 이화사랑 선각자 역할 한이화 위해 한번 더 힘 모으길

6월 14일 이화삼성문화회관 8층 총동창회 회장실에 함께 자리한 세 분은 모두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였고 현재 두 분은 고문으로서,

한분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연임되어 현 회장으로 20만 동창을 위해,

모교를 위해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 날 좌담회는 총동창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윤순희, 김순영 고문의 진솔한 회고와 조언으로 앞으로 총동창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더 큰 이화사랑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정리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흥보부장), 박경희(신방 90,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진 최영(사진작가)



조 회장 · 저희 총동창회가 105년의 연혁을 가지고 오늘이 있기까지는 열다섯 분의 전 동창회장님들의 혼신과 사랑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문님으로 계시면서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며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선배님들의 노고가 새삼스레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자리는 그동안 총동창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생각하시고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일에 중지를 모으는 초석으로 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총동창회 회장 재임 시기와 취임 후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 고문 · 2003년부터 4년간 봉사하면서 대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원들이 서로 잘 화합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러려면 회장 자신이 모든 임원들을 섬겨야겠다는 자세로 밑바닥에서 걸레질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굉장히 잘 화합했던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기쁘게 돌아보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가장 큰 보람이라면 재임시 '아름다운 이화 인상'을 제정했던 일입니다. 금년이 9회째인데 수상자들을 볼 때마다 보람있고 기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날 동창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창 한 분이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선례가 없는 일이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임원들이 선뜻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제가 보태고 해서 3백만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흔쾌히 도와준 임원들의 정성에 그 동창은 무사히 퇴원했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와서 모두가 기뻐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조 회장 · 윤 고문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아름다운 이화

'인상'은 각 계에 숨어서 봉사하고 있던 동창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훌륭한 수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고문 · 4년(2007~2011) 동안 일하면서 저는 우선 동창회 업무를 수행할 때 상식적이고 보편화된 사고를 중요시했습니다. 동창회의 시선이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전 동창을 향해 있어야 함은 물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했고 항상 임원들이 먼저 나서서 시간과 물질을 기쁘게 쓰면서 도와주는 것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이니셔티브 이화' 프로젝트를 돋기 위한 모금 운동과 동창회 100년사 편찬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었습니다. 재임 시기에 총동창회 설립 100주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음악회', '대바자회'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동창회 100년사'를 출판하기 위해 많은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3년 만에 출간해 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동창들의 업적과 궤적을 집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조 회장 · 저도 회장직을 맡고나서 '총동창회 100년사'를 열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100년사' 속에 담긴 선배님들의 동창회와 모교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김 고문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 남다른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두 분을 비롯한 전 고문님들께서 기꺼이 앞장서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오늘의 동창회를 만드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총동창회 임원들도 각 분야에서 훌륭한 재원들이 모였기에 오늘 이같이 발전한 것이고 이화의 큰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재임 시에 아쉬웠던 부분이나 더 했으면 좋았을 일은 무엇입니까?

윤 고문 · 지방 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지 못한 아쉬움



윤순희 고문

서로 잘 화합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이 남습니다. 저희 활성화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창을 우선으로 하여 3박 4일 워크숍을 준비했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인지 바자회 개최 때는 예상보다 많은 저희 동창들이 참여하여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아름다운 추억은 워크숍 당시 밤에 감자,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동창회와 이화에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서로 나눈 일입니다. 그때 참석한 동창들의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또한 북미주자회연합회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조 회장 · 2005년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의학과 '올해의 이화인'에 선정된 덕분에 윤 고문님 별장에 가서 아드

님이 직접 운전한 요트에 참석 동창들과 함께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이 인상깊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곤끈한 선후배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보지 못했던 다른 과 동창들과 먹고 차며 특별한 추억을 쌓기도 했지요. 저 또한 후배들과 그런 경험을 나누고 배풀고 싶었습니다.

김 고문 · 제 임기 때에도 국내지회 활성화 및 후원이사를 위한 워크숍을 2년 계속했고 그 다음은 각 국내지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통에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일이라면 평소 젊은 동창들을 위한 어린이집 같은 턱아·육아 시설을 총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천에 옮지기 못한 일입니다. 많은 젊은 동창들이 주변에서 제안을 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총동창회가 숙고해 봐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북미주자회 연합회 문제가 아직 그대로입니다. 어떤 지회도 총동창회 회칙을 준수해야 할 줄 압니다.

조 회장 · 이번에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창립 127주년 기념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교 발전을 위한 모금이 현안이 되었는데 두 고문님 재임 시에도 모금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동창회가 30억 원을 목표로 모금할 예정인데 그 동안의 경험을 되살리셔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고문 · 모금할 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준비가되어 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한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참여해야겠다고 흔히들 계획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주머니를 열게 되지 않습니다.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의 농도가 얼마나 짙은가에 따라 주머니를 열게 됩니다. 동창회의 역할은 그 사랑의 농도를 질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회장이 솔선해서 자감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밥이라도 자꾸 사면서 이런 저런

자리를 만들어 친교의 자리를 주선해야 합니다. 또한 뭘 가 맡고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예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동창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정성과 관심을 쏟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부언하자면 특별한 모금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동창들에게 모교에 대한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감동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의 구조 조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 목표한 모금액을 다 맞추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완성해내지 못했던 게 크게 안타깝습니다.

김 고문 ·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고문님 말씀처럼 항상 여러 면에서 솔선해서 지갑을 열고 모임을 해야 했습니다. 모교의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그 꿈을 위해 각 대학과 과 회장들을 모으고 모금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음악도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감성적이기도 해서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나름대로 감동 전략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에 학교에서 모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삽입된 아바의 'I Have a Dream' 이 흐르면서 프로젝트를 보는 동창들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영향력도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금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임원 및 동창 모두가 한마음으로 호응해주어 목표는 50억이었는데 약정이 60억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고문 · 각 대학과 과 회장들을 초대하여 1박 2일 정도 기부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화인들이 스스로 후원금 약정을



김순영 고문

**임원 및 동창 모두가
한마음으로 호응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때까지가 회장단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장단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 회장 · 연인들이 상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애를 쓰는 것처럼 말이지요?

김 고문 · 후원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말도 매우 조심스럽게 잘 해야 합니다. 잘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 회장 · 모금 독려를 할 때, 회장으로서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모금이 저조해질 때는 어떻게 끌어올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고문 · 학과별로 중간 모금 과정을 그래프로 만들어 대학과 과 회장님들께 보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화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조종남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파뜻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회장 · 이화사랑이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자꾸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문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도 3년째 동창회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하다 보니까 관계되는 분들 만나 말씀 들으면서 이화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 대학과 과, 졸업연도가 다 다른 고문님들의 학창시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이화여대생이었는가?', 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스승이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고문 ·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취직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초등교육과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도 1차로 발령받아 교사로 3년 재직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길 싫어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이었는데 이화에서 생

활하면서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며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결혼이 늦어 질 거라고 김종서 교수님께서 걱정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특출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지금 돌아봐도 저는 교육과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졸업 후 몇십 년이 지나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이수했을 때 비로소 이화의 교육이 훌륭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승의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로 진로를 바꾸게 만든 고3 담임 선생님의 진로상담 결과로 오늘의 제가 있음을 압니다.

김고문 · 대학에 오니 많은 공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3때보다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악대 공부가 많았습니다. 실험도 많았구요. 공부가 많다 보니 점서적으로 매달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머리를 식힐 수 있었던 채플 시간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데 어째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단지 북한이 우리보다 7년인기가 앞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적으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채플시간에 사회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짜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학년 때 4·19 의거가 있었고 4학년 때 5·16 군사혁명이 있었으니 격동의 시기였죠. 실험과 시험에 매어 있어 인문 계통의 책에 목말라 했던 학창시절이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회적 관심은 있었지만 공부만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정기영 교수님께서 주도하신 국악반이 생겨 좋았고 합창부 활동, 음악회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과적인 것보다 문과적인 성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회장 · 두 분 모두 학창시절 평범한 학생이셨다고 하시지만 4년 동안 총동창회장을 역임하셨고 고문으로도 수년을 재임하시면서 총동창회를 물심양면으로 돋고 계시

는데요, 앞으로 우리 총동창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그동안 총동창회를 통해 바라본 '이화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고문 ·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재임 당시 저는 한 가지 신념은 가지고 일했습니다. 동창회는 학교와 더불어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협력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학교에 동창회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동창회가 너무 늙지는 않았는가를 가끔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육아와 자녀교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해 학교발전기금 모금 협조는 젊은 동창에게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지만 말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화가족 어린이 미술대회' 같은 행사는 엄마가 다녔던 학교에서 자녀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미술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회장 · 금년 가을에는 이화 동창 글짓기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화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이화 사랑을 더욱 돋독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젊은 동창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고문 · 동창회의 정체성은 많은 동창을 참여하게 하는 것과 학교발전에 협조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동창회는 모교와 같이 가는 동반자입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이화정신과 이화동창회의 전통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주지하는 바이지만 이화정신이 개인의 이익이나 아집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하고 협신하는 것이라고 볼 때 큰 출기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화정신은 실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화 안에는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아름다운 전통 위에서 창의적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나온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글짓기 대회'는 새로울 것 같습니다.

조 회장 · 이화는 지금까지 여자대학으로 세상에 1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세계 1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윤 고문 · 이화는 어느 시대에서든 항상 선각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남이 바라보지 않을 때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이화에서 설정한 '6대 이화 미래전략'을 보니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화가 나아가야 할 연구과제의 방향을 참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남과 다르고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도 설립 당시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고문 · 모교 이화가 '글로벌 여성교육의 Hub'를 지향점으로 밝히고 이를 위한 글로벌 Top 5 사업 등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와 선진화된 학부 교육 시스템(페이지 덴셜 칼리지) 도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세계를 향해 지적,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이화공동체 의식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로 뻗는 모교와 함께 우리 총동창회도 세계화되어야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회장 · 오늘 고문님들께서 많은 경험과 깊은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독교 정신까지 이화정신에 담아주셔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를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작년에 이어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성황리에 개최



총동창회가 젊은 동창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 5 월 4일(토)에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1년 중 가장 푸르 고 아름다운 5월에 개최한 제 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이화동창 가족들에게 자녀와 함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내의 모교를 방문 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만든 뜻 깊고도 귀중한 행사였으며 금년에는 특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열려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5월 4일(토) 10시 부모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강당 앞에 모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푸짐한 미술용품과 정성어린 점심 을 한아름 받아들고 이화 캠퍼스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분주하였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250여 명의 참가 어린이와 500여 명의 이화 가족들이 함께 하여 수상자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조종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녀들과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교정을 거닐며 오실 수 있도록 마련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젊은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 자녀들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상자 및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금년에는 참가 어린이들 모두 특별 참가상을 받았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우수 작품들이 많았다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있었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다. 이번 행사는 조종남 총동창회장

과 임원들이 자녀 양육으로 동창회 참여가 저조한 젊은 동창들을 위해 모교 방문을 겸해 마련한 두 번째 행사로 어린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고 격려하는 것과 더불어 이화 가족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사랑의 축적으로 자존감 키우는 대회로 성장하길

남은숙 / 생미 80, 조형대학 회장



감탄을 자아내는 오월
의 이화 교정과 사랑스런
모습의 어린이들은 참 아
름답게 잘 어울리는 모습
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하는 자격으로 만나기는
했어도 다양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즐거웠습
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심사를 하면서 즐겁게 그
린 그림엔 같이 즐거웠고 기발한 표현엔 같이 감탄하
였습니다.

심사는 작년에 이어서 부모의 손이 많이 들어간 그
림은 일단 제외키로 한 원칙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몇
몇 그림은 저학년 그림일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그
린 그림이 있어서 부모의 도움 여부에 고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현재 어린이들이 훨씬 향상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그려서 어린이의 순수성이 보이는 그림, 기
발하게 그려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림, 관찰력이 뛰
어나서 풍부한 표현을 보이는 그림 등 어린이들이 가
진 하나하나의 능력과 개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
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그림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상
작들을 가려야 하였기에 성장기의 건강한 경쟁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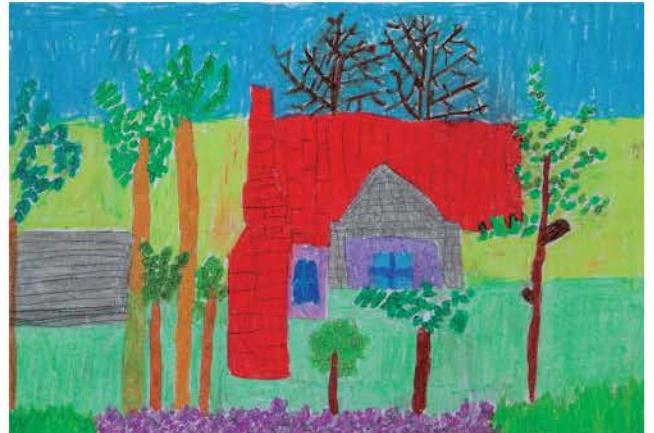
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상이
끝나고 여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큰상을 못 탄 것
에 많이 실망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
최한 총동창회의 처음 취지처럼 그동안 자녀 양육으
로 학교를 찾기 어려웠던 젊은 동창들이 학교를 다시
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교의 품 안에서 어린 자녀들
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연령인
유아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은 무엇
이든지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
는 시기이므로 부모님들은 그려주거나 어른의 판점
에서 유도하지 말고 아이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
고 그릴 수 있도록 격려만 해주십시오.

어린이들은 오월의 이화동산에서 엄마아빠의 사랑
을 듬뿍 받으며 그저 즐겁게 그림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는 자리에서 그런 어린이
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맘껏 자녀
들의 그런 모습을 그저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체험한 사랑의 기억이 어린이들을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케 할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동창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그런 자리와 기회가 되기
를 바랍니다.



충동창회장상 수상 유치부 최상훈



충동창회장상 수상 초등부 임서영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한화구 - 한영실(도예 83) 등장

(주)모나미 - 최명숙(정외 57, 전 충동창회장) 등장

(주)크리운해태제과 - 육명희(경영, 2012 명예 졸업) 등장

두 번이나 손주들과 행복 여행 만들어준 동창회에 감사

한영숙 / 보건간호학과 (75)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이 제 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년, 우연히 동창회에서 온 이메일을 접하고는 1회 사생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3명의 손주 중 초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생인 위로 서열 1위와 2위만 예리고 참가했습니다.

손주들은 마치 놀이동산에 도착한 듯이 즐거워하며 그림을 신나게 그렸습니다. 작년에 큰손녀인 최재연은 참가상을, 작은손녀인 최주연은 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참가했던 최주연과 작년에 너무 어려 참가하지 못했던 셋째 손주인 최상훈이 참

가했습니다. 손주들은 그림을 후딱 그린 후 동창회에서 준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처음 만난 젊은 후배의 아이들과 어울려 땀을 펄펄 흘리며 풍선 칼을 갖고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노는 모습만 보아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자리를 뜻한 큰딸과 토요일은 병원에서 일해야 하는 큰사위에게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최상훈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휴! 연한 하늘색으로 부드럽게 그리지.. 질푸른 색으로 찍찍 그리네(?) 새 한 마리는 좀 더 잘 보이게 그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사하신 교수님들의 그림 평가하시는 눈과 비전문가인 저의 눈은 이렇게 확연히 수준차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외손주인 최상훈이 자기 이름이 뒤늦게 호명되자, 상기된 얼굴로 다람쥐같이 재빠르게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주들이 제가 4년간 다녀도 상을 받기 위해 단 한 번도 못 올라가본 단상을 2년 연속 올라가주었습니다. 호호~.

동창회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궁금해하면서 모교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왔습니다.

세상사는지혜보여준소풍같은 축복의 하루

최미수 /국어국문학과(88)



최미수동창과부군, 수상자 임서영양, 언니 채영양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항상 씩씩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서영이라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의외였다. 나름 많이 긴장했었나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참가상을 받은 언니 채영이가 호명될 때만 해도 자기는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오히려 언니를 위로하면서...

그런데 장려상에서도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자 자기 이름이 빠진 것이라며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찢어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지막에 “총동창회장상 임서영!”이 호명되었다. 우리도 그렇지만 서영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림그리기 대회 날 아빠의 출장으로 학교에 좀 늦게 도착하여 허겁지겁 자리를 잡다보니 띄야별 아래라 너무 더위 스케치를 한 후 나무그늘 밑으로 들어가 색칠을 하였다. 시간 맞춰 제출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다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런 그림 내기 좀 민망하지 않니?”라고 오히려 편장을 주었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 아이가 수상을 하게 된 것도 좋지만 그보다 기교에 앞서 아이의 순수함을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요즘 서영이는 말끝마다 “나 대상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장난처럼 말하곤 하지만 그만큼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소풍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석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우리 가족에게는 뜻 깊은 기념일이 되었다. 앞으로 언니 채영이가 내년에 4학년이 되면 참가할 수 없게 되어 별씨부터 많이 아쉬워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이화동창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 1~3학년, 4~6학년으로 구분하여 참가 인원과 범위를 더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본다. 학교 다닐 때는 느껴보지 못한 푸근한 엄마의 품 같은 이화 교정에 아이들과 오래도록 소풍가고 싶은 마음이다.



총동창회는 앞으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젊은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 자녀들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것이며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이화가족 글짓기 대회(가제)' 등 20만 동창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 개발로 이화 가족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이다.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당일 검진 결과 후 신속 대응 가능, 남녀 검진 트랙 분리는 국내 유일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이번 호부터 마련하였다. 그동안 동창들이 잘 몰랐던 구석구석을 찾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이화가 자랑하는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였다.(편집자 주)



건진센터 안내데스크

“흔히들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정해진 동선에 맞춰 떠밀려가듯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받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 센터는 여성과 남성이 별도의 두 트랙으로 나뉘어져 실제로 검사 인원이 많아도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을뿐더러 검진자 한 사람 당 전담 간호사가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녀로 트랙이 완전히 나뉜 것은 이대건진센터 하나뿐입니다.”

목동에서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문

을 연 이래 5년 남짓 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숙 교수는 이화만이 갖고 있는 건강검진 시스템과 자원에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동대문과 목동 이대병원이 통폐합되던 당시, 이화가 주는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목동병원과 건강증진센터의 방향이 정해졌다. 당시 지역사회와 의견,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컨설팅 받은 결과였다. 여성병원, 여성건진센터, 여성암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비전과 전략이 하나가 된 셈이다.



검사 결과 듣는 검진자들



검진 후 세부상담을 받고 있다

여성에 최적화된 검사 트래. 남녀 구분된 별도 검사 트래 완비

실제 검사할 때 노출에 대한 부담감, 또 여성만 해야 하는 유방 검사나 부인과 검사는 노출을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느 불편함을 차단하기 위해 분리 트래을 만들었다.

또 검사 항목도 유방, 갑상선, 부인과 등 여성맞춤형으로 정밀하게 최적화하고자 능력 있는 교수진을 영입하고, 초음파 기계 같은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였다.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체 검진자들은 물론 개인도 검진하려 할 때도 이대검진센터를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한 번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수검률도 매우 높다.

당일 검진 결과와 향후 대응 신속, 긴밀히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실제 검사 당일 여성관련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궁암이나 유방결절 등이 보였을 경우 결과 기다렸다.

훗날 자기가 알아서 외래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우리가 4층에 있는 유방·갑상선센터로 연결해서 가운데 입은 채로 올라가서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검사 후 암이라면 수술 스케줄까지 신속히 잡아줍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부위라면 따로 날짜 잡지 않고 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김 소장의 말처럼 따로 외래를 거쳐야 하는 번거

건진센터 사람들



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에 검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대센터의 목표는 무증상 조기암 환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발견해서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대 목동병원은 각 종 과를 다 갖고 있는데다가 비정상적 소견이 나왔을 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검진센터가 갖추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각 과의 연결성을 최대한 살려 당일에 검진자의 불안과 답답함을 말끔히 해소시키려 애쓰고 있다.

본인이 알아서 예약하고 일일이 뛰어다녔던 것 이 기존 다른 센터에서 받았던 서비스였다면, 이대 센터는 검진자의 자발적 대리인이 되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대센터는 검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신속·정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라 여긴다. 그게 차이이자 이대 센터만의 철학이다.

인터뷰 중에도 김정숙 소장은 초음파 환자 진료를 위해 급히 달려나갔다 다시 인터뷰에 합류하는 등 리얼 원스톱 서비스의 생생한 참모습을 증명하였다.

“이게 간단해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상소견이 체크가 되면 바로 초음파나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유방센터로 보내면 너무 기다리게 하니까 바로 제가 결과 나오면 초음파를 보면서 판독하죠. 흔히 유방 촬영해서 초음파 보자고 하면 암이 아니냐 걱정을 합니다. 촬영에서 혹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초음파로 자세히 봤더니 혹이 아니고 늘어서 그렇

게 된 위양성(偽陽性)이었죠. 지금 제가 보고 온 케이스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 하니까 본인은 결과 보고 바로 집에 갈 수 있어 참 좋아하시더라구요.”

통장들은 30% 할인 혜택 있어

의대를 비롯해 이화 동창이 검진센터를 방문하는 비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 더욱이 동창의 경우 30% 할인이 된다는 사실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작년엔 ‘이화동창’ 회보에 우대권을 만들어 배포했다. 인터뷰 당일 그 우대권을 가지고 울산에서 한 동창이 여동생과 함께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 이화 동창이면 우대권이 없어도 30% 자동 할인된다고 한다.

동창 본인과 배우자는 똑같이 30%, 자녀는 20% 혜택을 준다. 그밖에 정신건강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를 정확히 진단하는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지역주민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검진 행사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글. 박경희(신방90, 이화동창 편집위원)



김정숙 여성검진센터장

장화인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

세계 유례없는 학교, 이화 정신을 이민사회에 쏟아붓다



5월 31일 모교 창립
127주년 기념식에서 윤
후정(법학 55) 명예총장
과 장화인(교육심리 69)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
현경은(사회 76) 현대그

룹 회장이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공동
수상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 명예총장은 "이화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축복과 영광
의 학교이다. 세계에 정말 이런 대학은 없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화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로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된 장화인 동창을 만났다.

"1965년 신입생 시절, 새벽기도에서 당시 김옥
길 총장님과의 만남이 저의 일생을 바꿔놓았어요.
아침 일찍 선생님 뵙는 즐거움으로 학교로 달려가
곤 했지요. 또한 대학YWCA 활동을 통해 세계를
향해 눈뜨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장화인은 대학 졸업 후 세브란스의대 학장과 병

원장을 지낸 이용설 박사의 손자 되는 심장전문의
이원규 박사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
화에서 배운 바르게살기와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
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만 불들고 살아온 30 여
년 이민생활이었다.

우선 장동창은 대학에서 활동했던 YWCA를 발
전시켜, 1985년 뉴저지 한인 YWCA를 창립, 섬김
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2000
년 일하는 아시아여성을 위한 사회봉사기관인
AWCA(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세우게 된다.

"YWCA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미국 지역Y에 가
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고 어려운 이민여성들을 우선적으
로 돋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
도하면서 끝에 새롭게 AWCA를 만들게 됐지요. 처
음이라 참 힘들었지만 정부 펀드를 받지 않고 동포
사회의 뜻 있는 분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
을 약속받으며 한인사회의 기부문화를 새롭게 했

포상 2010 Community Award(Bergen County, New Jersey), 2006 '사랑스런 정신인' 표창(정신여고), 2004 Urban Angel(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2005 Leadership Award(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1969 EMA Award(이화여자대학교)

저서 '공자, 그리스도, 그리고 파트너십', '개나리꽃, 다시 필 때', '하나님께 아끌려 산 삶', '왜 YWCA인가', '진정한 자유를 찾야', 'Building Capacity for Ministry', '지도자가 되는 길' 등



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AWCA는 소외된 이웃을 돋기 위한 가정상담소 활동과 이민생활 정착 지원, 한인 경로대학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주 동포들의 복지 지원 확대에 헌신해 오고 있다.

15년 전, 장 동창은 뉴욕 최초의 한인 개업의사 임길재 동창의 권유로 이화국제재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화국제재단은 1933년 이화를 돋기 위해 당시 아펜젤러 교장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시작되어 김 활란 박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신촌캠퍼스를 건립하는 데 재단의 지원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화국제재단과의 만남은 장 동창에게 모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세계에 이런 대학은 없다는 윤후정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이화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자긍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

는 그런 귀한 동창들이 어디 있겠어요. 100억 달러를 모아 한 해에 이자로만 5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보내기 위해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90억 달러를 기부 받아 이제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이렇게 지역사회와 모교를 위해 맹활약을 하면서도 장 동창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명문 프린스턴 신학대학과 예일대학, 드루 신학대학에서 목회학과 여성신학을 공부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프린스턴 다닐 때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 했을 거예요.”

이들 둘, 딸 하나가 모두 의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손주도 여섯을 두고 있는 축복된 가정의 어머니 장 동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말씀대로 더욱 은혜와 선함의 통로가 되길 기도드린다.

글 배수경(신방 79, 이화동창 편집위원)

2회에 걸쳐 열린 각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4월 18일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각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정기 간담회가 열렸다. 김효신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2012년도 총동창회 활동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제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행사' 등 5월에 진행하는 많은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각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들은 작년에 이어 개최하는 제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9월 11일로 예정된 '대바자회' 행사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7월 2일 다시 한 번 열린 각과, 대학, 대학원,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지난 정기 간담회

에서 논의한 '대바자회'에 대한 세부 사안이 검토되었고 결정 사항을 참석한 회장들께 설명하였다.

또한 이날 안전 중의 주요사안인 '모교 발전 프로젝트 기금 마련'에 관해 먼저 모교 대외협력처 양육경(영문 82) 처장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영상물 상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종남 회장은 '모교 발전은 곧 우리 동창들의 위상이므로 모교 사랑을 모금 참여로 표현하면 좋을 것'이라며 후원금 기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과, 대학, 대학원, 지회 회장들도 목표 모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이날 오찬은 대외협력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지회 동창 초청 캠퍼스 순례



총장 초청 오찬을 마치고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오찬 및 모교 캠퍼스순례

6월 1일(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년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지회 동창들을 위해 총동창회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모교를 돌아보기 전 ECC 캐세이호에서 열린 오찬회를 통해 조종남 회장은 해외에서도 귀한 시간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창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지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오찬 후 해외지회 동창들은 재학생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과 ECC 밸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해외지회 동창은 뉴욕지회의 이보영

(피아노 56), 박문순(사학 66) 회장, 유덕행(약학 71) 전 회장, 최은실(종음 97), 런던지회의 정미령(교육 66), 남가주지회의 이혁숙(영문 54 입), 독일 오스트리아지회의 이순애(체육 80), 북가주지회의 이현수(음악 56), 변옥주(독문 76) 동창 등이다.

정기임원회에서 모교 발전금 30억원 모금하기로

4월 10일과 5월 8일에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행사를 평가하고 5월에 개최하는 행사 준비를 위해 논의와 협의를 하였다. 이 날 각 대학, 대학원

총동창회소식

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은 서로 협심하여 많은 행사들을 품위있고 원활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9월에 있을 큰바자회에 관한 논의도 하였다.

6월 경기임원회는 5월 행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임원 및 고문, 회장단을 위해 아령당에서 총장 초청 오찬으로 12일에 열렸다.

오찬 후 열린 임원회에서는 5월에 개최한 많은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안전으로 모교 발전 후원금 모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은 후 30억 원을 모금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3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

4월 23일 이화 삼성 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3회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에 김선옥 모교총장,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조

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언론영상학부 교수진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화언론인클럽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이 날 크라운-해태 제과 홍보상무인 신연숙(신방 76) 동창과 어린이채널 EBSU 팀장 프로듀서인 오정석(교공 90) 동창을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신 동창은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30년 가까이 언론인의 길을 걸었고 이후 파라다이스미디어아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재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언론 발전에 노력해왔다.

오 동창은 방송국 프로듀서로 20여년 간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며 뛰어난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총동창회가 찾아간 지회

5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지회



조종남 총동창회장과 남성희 대구지회장

6월 28일 총동창회가 찾아간 대구지회는 마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대구 보건대학교 총장인 남성희(신방 78) 회장의 오찬 초대로 열린 이 자리에는 약 40여 명의 지회 동창들이 자리하여 정답을 나누고 있었다. 지난 5월 31일 '동창의 날 행사' 합창경연대회에서 큰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준 대구지회 동창들을 만난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박유나(도예 81) 부회장, 김효신(의학 84) 총무, 유영선(신방 75) 홍보

부장, 이혜양(식영 79) 지역부장 등 총동창회 16대 임원들은 꽃다발 환영 등 극진한 환대에 감사하며 정기월례회를 함께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종남 회장은 지회의 최정숙 (영문 81) 수석 부회장과 이동광(영문 82) 동창으로부터 후원이사승낙서를 전달받고 격려사를 통해 '54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지회의 더욱 큰 발전을 바라며 이화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이화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하며 모교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1959년 창설된 대구지회는 현재 약 150 명의 동창 회원이 있으며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남성희 회장을 비롯하여 최정숙, 김명옥(서양 84) 부회장, 이영미(서양 82) 총무 등 임원진들이 봉사하고 있다.



선교부 소식

이화창립 127주년 기념 감사찬양 예배

5월 21일(화) 오후 5시 모교 중강당에서 열린 이화창립 127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는 127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이 이제 이화라는 이름으로 2만 여명의 재학생과 20만 동창들의 거대한 나무로 자랐음에 감사한 예배 시간으로 금년에 11년 째를 맞이하였다..

이 날 감사예배는 총동창회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은경(성악 64) 동창의 찬양인도와 지연숙(사회 82) 전 선교부장의 기도, 조종남 동창회장(의학 75)의 성경봉독(요한복음 4:36-38)이 있었다. 이어서 양명수 목사(모교교목실장)의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주제로 뜻깊은 설교가 있은 후 연대와 이대 성악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다락방 노래선교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이화기독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의 현금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김선옥 총장(법학 75)의 격려와 정종훈 목사(연세대 교목실장)의 축하말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화의 역사와 사명을 확인하였으며 지난 4월 26일~27일 미국 남가주에서 공연하였던 '발레 메시아 10주년 미주공연을 마치며' 동영상을 보면서 참석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본격적인 감사 찬양은 총동창회 동창들 모임을 통해 이어지면서 찬양의 물결이 더해졌다. 횃불회는 '주 하나님께, 주님의 반석을', 법대동창들은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이어진 이화발레앙상블 지혜란, 이윤경(무용과 대학원 재학) 듀엣 몸 찬양 'you raise me up'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조형예술대 동창들의 '저 장미꽃 위의 이슬', 불





문과(아미24중창단)동창들의 'you raise me up', 선교부의 '하나님의 은혜'와 김은주 선교부장의 찬양 등 감사찬양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감사 찬양 예배를 마치고 이화동창은 모두 한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졌고 권해옥(영문 75)동창이 준비한 떡을 모두 받아들고 이화 가족으로서의 만남을 기뻐하였다.

부터 선교부를 섬겨온 5대 김덕희(약학 61), 6대 이명경(무용 77) 선교부장을 초청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경(성악 64) 동창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여 개회예배 및 사회를 김미순 현 선교부장(기독 75)이, 설교는 최예정(화학 82) 동창이 시작하였다.

1부와 2부를 이어가는 쉼의 시간에 성해옥(영문 70) 동창의 인도로 헨젤의 메시아 복음을 감상을

은혜받은 봄수련회

선교부는 총동창회 안의 한 부서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1대 선교부장으로 198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수련회는 25년의 선교부 역사 중 1999년부터 시작된 기도모임 이후의 혼적들을 역대 선교부장을 초청하여 은혜받는 시간으로 하였다.

3월 26일 동창회관 옆에 있는 이화여대 다향방 전도협회에서 가진 선교부 봄수련회에서 1999년



하였다. 1부에는 기도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한 김덕희 동창이 그 시작과 재임 중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나누었다. 본관 애다 기도실에서 세 분의 동창이 시작한 기도회가 대학교회 소예배실을 거쳐 이곳 다락방으로 옮겨졌다. 동창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화 역사의 시작이 선교로 이뤄졌음으로 인해 이화가 선교로 그 역사적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흔적들을 모으기 시작한 일을 나누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을 모아 2002년부터 '이화동창선교사기도 수첩'을 제작하게 되었다. 127년 전에 미국서온 53세의 여선교사가 시작한 이화가 이제는 130명 이상의 동창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매년 보내오는 그들의 기도제목을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다. 또한 여름과 겨울 방학을 맞아 세계 각처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모아 환송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화의 선교의 비전을 이

어갈 수 있기를 위해 선배선교사들의 격려와 함께 축복을 해준다. 모교에 잠간씩 방문한 선교사들을 위해 의상을 헌납받아 예배나 보고회 등 공식모임에 설 때 모국의 적응을 도와주기도 한다.

2부에서는 이명경 동창이 2003년부터 '발레로 만나는 메시야' 공연을 위해 총동창회 선교부가 도움을 주는 일에 함께 봉사하여 은혜를 나누게 됨에 감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화동산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기도처들을 모아 '이화동산기도처순례'란 책자를 발행하여 이화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야' 10주년 기념 미주 공연을 앞두고 그동안 총동창회 선교부를 통해 이화에 역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특집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글 성해옥(영문 70)



법과대학

회장/ 문미란 (법학 80)

제7회 이법포럼 개최에 140여 명 등장 참석

법과대학 동창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하여 5월 20일 본교 ECC 아산 봉홀에서 제7회 이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모교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석학 최재천 교수의 '법학과 생물학의 통섭-DNA를 아시나요?'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이 날 신인령 전 총장, 전효숙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송덕수 전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명숙 이대 법조인 회장, 이선희 전 이대법조인 회장 등을 비롯한 약 140여명의 동창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최 교수는 특강을 통해 '법학과 생물학의 통섭을 통해 법률가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법학이 될 것'이라며 현대인들에게 열린 사고로 소통하며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창의와 여유를 가지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5월 30일 현법재판소는 교육부가 여성만 입학할 수 있게 한 모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을 인가한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모교 로스쿨의 인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최종 결정했다.

현법재판소는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며,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모집요강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모교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화여대의 정체성의 핵심은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이고, 교육목표의 핵심은 여성자도자 양성에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대학의 자율성에 해당"하고 "교육부가 이화여대의 모집요강을 인가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 (약학 72)

정원요양병원에 위로 공연과 후원금 전달

4월 2일 봄 정기 행사로 정원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을 방문하여 위로공연과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강원식(약 13회)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이곳에 올해도 임원 및 동창 43명이 방문하여 예배를 보고 박하영(약 28회) 사업부장의 사회로 약대합창단의 공연, 한국무용(까트리54무용단), 스포츠댄스(김경옥 약 23회)의 공연을 하고 후원금(430만원)을 전달하며 환자들을 위로하였다.

4월 25일에는 제 32회 ‘화합의 날’을 맞이하여 동창회가 주관하여 충주 동화약품 견학 행사를 개최하였다.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진다’는 ‘화합의 날’의 의미대로 이날 188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버스 5대가 출발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동화약품 공장견학, 선불 전달, 기념 촬영을 비롯해 시내투어, 중앙탑 박물관, 고구려비 관람 등 멋진 동창 화합의 날을 만들었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변희숙 (생명 73)

임원회의 개최 및 선운사 아유희 가지

4월 1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화학과 1박2일 봄 야유희(고창 석정온천과 선운사)를 다녀왔다. 38명의 동창들이 함께 하였으며 4기부터 29기까지 참석하여 선후배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부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국문과

회장/ 김충실 (79)

정기총회에서 \이근후 박사 특강 들어

5월 16일 이화삼성교육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120여명의 동창이 모여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임 회장으로 김충실(79) 동창의 선출과 함께 모교 명예교수이신 이근후 박사의 특강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들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정기총회를 마쳤다.



경영학과

회장/ 손향아 (81)

선후배간 화합과 교류의 장 만든 일원회의

5월 20일 경영학과 동창회인 '이화경영 II'의 상반기 정기 운영위원회를 서초동 '팜스팜스 해물뷔페'에서 개최하여 6월에 열릴 예정인 홈커밍 행사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1년간 경영학과 동창들과 모교의 소식을 모아서 매년 정기

적으로 발행되는 '이화경영' 회보에 실릴 구체적인 목록 및 준비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홈커밍 테이에 초대되는 동창들에게도 정성어린 선물을 지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은 동창회 전임 회장 및 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이화경영 I' 선배들의 방문으로 모처럼 세대를 뛰어넘은 선후배간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배들은 그동안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던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었다.

교육학과

회장/ 이계영 (82)

이화교육네트워크, 스승의 날 뜻깊은 모임 가져

3월 2일 초전섬유·컬트박물관(관장, 김순희 55)에서 이화교육인들의 3월 텁방모임이 있었다. 교육학과 1회 졸업생 안인희 명예교수와 동창 및 제



학생, 30여명이 참석하여 소품을 만들고 한국 전통 조각보, 캔트 작품 등을 둘러보며 정겨운 점심식사 시간도 가졌다.

3월 16일 교육관 김애마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전 현직 교수와 동창 및 재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신임회장 이계영(82), 부회장 기순신(83) 동창과 신임임원들이 소개되었다.

오랜만에 스승과 정겨운 선후배,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학교 모습도 다시 한 번 마음에 담았던 날이었다.

4월 6일 ECC 157호에서 ‘부모에게는 자격증이 필요없는가?’의 주제로 이은화 명예교수(59)의 강의가 있었다. 현재 부모와 특히 앞으로 부모가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부모교육의 문제 및 그 효율적인 실시 방안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날 학교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부모교육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과 체계적인 부모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시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한편 5월 14일 ‘스승의날 모임’을 교내 진관 101호에서 교육네트워크 모임의 행사로 개최하였다. 전 현직 교수와 학부 및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교육행정 전공의 동창 및 재학생 50여명이 참석하여 사제지간, 선후배지간의 따뜻한 정을 재확인하였다.

교육공학과

회장/ 하진경 (75)

과창립 50주년 행사 성황리에 개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교육공학과는 지난 5월 4일 ECC 이삼봉홀에서 ‘5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0여 동창생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핸드벨 연주와 교육공학과장 강명희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는 김선욱 총장과 하진경 동창회장, 이인숙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원로 교수들과 1, 2기 동창들까지 함께함으로써



1기 선배부터 13학번 50기 신입생들까지 이화 교육공학 50년의 역사를 함께한 동창들이 모두 모여 추억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여기에 동창과 교수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50주년 감사장학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여 본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고, '올해의 이화인' 과 학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배들에게 '공로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기념 오찬 이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바이올린 연주, 아카펠라 공연, 그리고 피리, 해금, 피아노 연주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본과 출신의 가족 구성원을 찾는 '교공가족 이어나가기'와 지난 5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과 음악이 어우러진 '교공 추억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과 50년을 감사하는 축제를 가졌다.

도예과

회장/ 한희선 (84)

'도림전' 및 스승께 감사한 사랑의 파티 개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에서 과 동문전인 도림전이 열렸다. 1979년 첫 번째 전시회를 가진 도림전은 올해로 제34회를 맞으며 한국 도예계의 흐름을 보여줌은 물론 세대를 아우르는 선 후배간의 교류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봄의 결정기에 열리는 전시인 만큼 꽃을 주제로 한 "가화만사성(家花萬事成)" 판매전으로 기획되었다. 조정현, 김수정, 유혜자 전 교수를 비롯하여 39기에 이르는 동창 63명이 봄 기운이 만발한 모교에서 함께 하였다.

한편 정년퇴임을 한 스승께 감사하는 사랑의 파



터를 a H s h 갤러리(舊 써니 갤러리)에서 5월 19일에 열었다. 조정현, 김수정, 유혜자, 김옥조 퇴임 교수께서 여전히 건강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쁜 와중에도 함께 자리하여 스승과 제자, 선후배간의 따뜻함을 나눈 시간이 되었다.

독문과

회장/ 이정화 (74)

신임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 개최

4월 11일 신임동창 환영회와 정기총회를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정화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정종희 부회장의 2012년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최민숙 교수의 모교소식을 들으며 40여명의 동창들이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성원(한국장학재단 4기 멘토) 청소년도서재단 이사장의 특

별 강연이 있어 신임동창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될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 날 신임 동창들은 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도 전달받았다.

동양화과

회장/ 이숙진 (85)

스승의 날 모임, 메이데이전 '내일의 작가상' 수여

5월 14일 석란에서 스승의 날 사온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이규선, 원문자, 오용길, 오숙환, 김보희, 이종목, 서은애 교수 등 전, 현직 교수들께서 함께 자리하여 고견을 들으며 감사함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 날 새 임원진 소개와 올해 동창회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한승연(83)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축하를 전하였다. 35명의 동창이 함께 담소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5월 27일에는 조형예술대학 A관 2층에서 동양화과 3학년 재학생들의 작품 발표회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동창회는 제 1회 ‘내일의 작가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가 후배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이끌고자 제정된 제 1회 내일의 작가상에는 한지희(1112185) 재학생이 선정되었다.

문화정보학과

회장/ 김이경 (77)

1회 선배들 졸업 50주년 맞는 뜻 깊은 해 2013년

지난 3월 23일 이화사서포럼(Ewha Librarian Forum, 회장 홍정순) 정기총회를 ECC극장에서 개최하였다. 이화사서포럼은 모교 출신 사서들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으로서의 사서적

인식 증진을 위해 각년에 발족한 전문적 동창클럽으로 이날 총회에서는 분과별 사업계획 보고 및 회칙안 인준이 있었고 앞으로 관종별(국가,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모임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5월 25일에는 석란에서 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1회부터 51회 졸업생까지 참석하여 문정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은 1회 선배들이 졸업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써 문화정보학과(전 도서관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동창들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불어불문학과

회장/ 강숙희 (74)

재학생 장학금 전달 및 ‘아미 24 중창단’ 활동 활발

신임 동창회 임원으로 회장 강숙희(14회), 부회장 한정숙(15회), 고문 장혜경(13회), 감사 홍경표(5회), 감사 박미해(14회), 총무 장영은(23회), 회계 서동민(19회), 서기 김이숙(27회), 최내경(29회) 등 창등이 선출되었고 4월 17일 모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졸업 30주년을 맞은 23회 동창들이 후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총회에서는 ‘아미회(불어불문학과 동창회)’ 24기 동창들이 모여 만든 ‘아미 24 중창

이화사서포럼 2013년 정기총회

• 일시: 2013년 3월 23일 (토) 오전 11시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





단'이 공연을 펼쳐 총회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고 풍성하게 했다. '아미 24중창단'은 이화 창립 127주년 감사 찬양 예배에서 'You raise me up'을 불러 신성함을 선사하였다.

사학과

회장/ 이해옥(74)

답사여행으로 즐거운 시간 가져

3월 28일 석란에서 사학과 정기 간사모임을 가졌으며 4월 25일에는 봄 답사로 16명이 안성 청룡사, 석남사, 칠장사 등지를 답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

졌다. 5월 정기 간사모임은 23일 모교 내 귀빈식당에서 가지고 동창회 활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활미술과

회장/ 이해경(82)

동창회 신임 회장단 모임 및 정기모임 가지

3월 13일 방배동 온리 갤러리에서 신임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이해경(82) 회장, 홍자경(82), 최유미(85) 부회장, 정주연(94, 시각디자인) 총무, 홍선기(96, 산업디자인), 김나은(12, 영상디자인) 동창 등이 참석하여 5월 바자회와 동창회 정기 모임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5월 2일에는 진관식당에서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며 한편 5월 21일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열린 감사 찬양예배에서 남은숙(80, 현 녹미희 회장), 홍선기(96) 동창이 생미과 대표로 참여하여 '저 장미 꽃 위의 이슬'로 찬양 노래를 불렀다.





서양화과 회장/ 공은희 (80) 신구 임원 인수인계 후 교수 간담회

3월 18일 인사동 ‘촌’에서 신구 임원 모임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3월 26일과 4월 4일에 각각 교수 간담회를 가지고 조덕현 교수와 신구회장 및 부회장, 강애란 교수와 회장, 총무 등이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4월 13일 ECC 극장에서 M.T 및 졸업생 홈 커밍 데이를 열었고 4월 29일 34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한진수, 유희영, 이준은사 대을 방문하여 감사 선물을 전달하였고 5월 27일 메이데이 학생 작품전 오픈식에 참여하였다.

섬유예술과 회장/ 김옥광 (80) 예미회 회장단과 새 임원 오찬 기도회

4월 27일 한우리 본점에서 예미회(섬유예술과

동창회) 회장단이 동창회 전시모임들의 회장과 총무를 초대하여 오찬 기도회를 가지며 앞으로 해야 할 행사와 추진해야 할 여러 사항들 그리고 예미회 정관 수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예미회 회장단으로 탁지숙, 이명님, 김혜순, 오복환, 이상복 회장 등과 신임 임원으로 김옥광, 장수연, 조경은, 전서윤이 참석하였고 동창 전시회 회장으로 이화섬유조형회의 봉지희 회장과 정경화 총무, 실과 바늘의 이상영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수학과

회장/ 권숙교(80)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밤 개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4일 수학과와 동창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먼저 모교 종합과학관 B동 102호에서 김선옥 총장을 비롯하여 현 교수들, 장상 전 총장, 김명환 대한수학회 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권숙교 수학과 동창회장 등 내외빈과 재학생,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60주년 동영상은 물론 수학과의 60년 성장을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랑스런 수학과 동창상'을 이해숙(과학기술진흥 부문), 안희진(사회봉사 부문), 이원재(교육 부문), 이애자(학술 부문), 권숙교(경영 부문), 진양혜(문화 부문), 이숙자(동창회 공로) 등 창이 각각 수여받았다. 이어서 장소를 옮겨 동창회 주최로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에서 동창의 밤이 개

최되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장상 이화여대 전 총장, 김성진 자연과학대학장, 박형주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 김명환 대한수학회 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소장, 고웅일 수학과장, 이해숙 교수 외 수학과 교수들과 6회 선배부터 2013년 신입동창까지 모두 19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수학과 동창회 2013년 총회를 간단히 끝내고, 동창회장의 개회사와 장상 전 총장의 격려사,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진 자연과학대학장, 박형주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축하 케익 커팅도 있었다.

동창의 밤 행사는 손범수(36회 진양혜 동창부근) 아나운서 사회로 기념식, 소통의 시간,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유석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참석 동창들은 학창시절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60주년을 기념하여 교수들께서 3400만 원, 동창들이 3000여 만 원을 모금하여 수학과 동창회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이경숙 (76)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식에서 임원 교체

5월 9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정기



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김동철, 안광식 명예교수와 김영옥 학부장을 포함한 다수의 현직 교수들, 70여명의 동창들이 함께 한 이 날 행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18대 회장단의 활동 내용 보고와 19대 회장단 선출, 신구 임원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학부 학생 3명에게 동창회 장학금도 전달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19대 회장으로는 이경숙(76) 동창이 선출되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아울러 흄커밍 20회를 맞은 졸업생들 중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출된 이현 동창의 인사가 있었고 김정희(70) 동창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유쾌한 특강과 경품 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월 30일 신구 동창회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신구 동창회 회장 및 임원들 간의 인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로에 대한 호의와 격려 속에 진행되었다.

유아교육과 회장/ 장태옥 (87) 감사와 사랑 나눌 스승의 날 축하 행사

5월 11일 힐튼호텔에서 스승의 날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기숙 교수를 비롯한 현 교수진들과 이정환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은사들께서 참석하였고 유청옥(39기, 학교법인 은실학원 새싹유치원 원장) 동창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창들은 김신영(28기, 백석대학교 교수) 동창의 기도로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며 장태옥(38기, 양재 천사유치원 원장) 동창회장의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장태옥 회장, 유청옥 부회장, 박희경 총무(40기, 국회 제2어린이집 원장) 등 12대 동창회 임원 7명이 광영숙 서기(52기, 인덕원 이화어린이집 원장)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합창하였으며 유 부회장의 사회로 참석한 은사와 현 교수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날 이정환 전 이대 교수는 이화유치원 재직 당시의 여러 에피소드와 기도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동창들을 추억에 공감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였으며 모두 함께 부른 '스승의 은혜' 노래와 선물 증정 시간은 감사한 마음 그 이상의 존경과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이어 박희경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레이션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늘 사랑으로 교육하는 유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빨대로 과자 옮기기', '동작으로 표현한 속담 맞추기' 등의 재미있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정환 스승의 선창으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동요를 모든 동창들이 합창하기도 하였다.

영문학과

회장/ 김원정 (75)

춘계강좌 및 '영학회의 밤' 개최

3월 26일 춘계강좌로 승효상 건축가를 초청해 지문(Landscape) 강연도 듣고, 점심도 함께 하며 동창 선후배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5월 3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룸에서 약 40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영학회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정숙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원정 회장의 인사말, 조종남 총동창회장, 김영일 원로교수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영자 동창의 전배제의로 시작한 만찬 후 재상봉 50주년인 63년, 64년 졸업



동창들의 중창과 독창, 재상봉 40주년인 73년 졸업 동창의 시낭송, 74년 졸업 동창들의 합창이 있었다. 이 날 참석 동창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은 '황재복 패션쇼'에서는 재상봉 30주년인 83년, 84년 졸업 동창들 20명이 직접 모델이 되어 화려한 패션을 보여주었다. 정말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영학회의 큰 행사였다.

컴퓨터공학과 회장/ 임미숙 (86) 정기 동창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및 감사패 수여

5월 25일 공학관 강당에서 가진 정기 동창회에 앞서 신임 동창회장의 선출과 인준이 있었으며, 격려하고 발전을 기약하는 전임 동창회장의 이임사

와 신임 동창회장의 취임사로 동창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동창회에는 이기호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 컴퓨터공학과 이민수 학과장과 비롯한 학과 교수 그리고 10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했으며, 학과와 동창회 발전에 큰 힘을 보탠 김정아, 문남미 동창이 동창회 이름으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2013년 신임 동창들의 환영 인사와 학창 동아리인 이화 코러스의 특별 공연이 오랜만에 교정을 찾은 동창들의 마음을 한껏 사로잡으며, 동창회에 이은 다과회에서 동창간의 인사와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동창회장은 "2012년 컴퓨터공학과 창립 30주년에 이어 2014년은 30기 신임 동장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동창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남가주지회

회장 / 김정순 (간호75)

정기이사회 및 성황리에 마친 〈메시아〉 초청공연

3월 14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정기이사회(이사장 박희자/ 간호 66)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이수훈(화학 59) 목사의 〈메시아〉 공연을 위한 특별 기도로 시작하여, 문금숙 동창의 회의록 보고와 김주경 동창의 이사회 회계 보고, 동창회 사업계획과 회계 보고가 이어졌다. 주 안건은 〈메시아〉 초청공연으로 〈메시아〉 DVD 관람이 있었고, Poster, Flyer, Ticket을 배당했다. 모두 17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옥자(교육 57), 윤수현(조소 68), 고복주(생물 70) 동창 등 새 이사 인준이 있었다.

4월 17일에는 모교 및 6개 대학이 참여한 미주 지역 공동입학설명회에 임원들이 참석했다. 모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입학설명회는 약 150여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4월 26일과 27일에 LA 소재 월셔이밸극장에서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은 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신은경 이대 교수 가안무와 총 예술감독을 맡고 모교 무용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이화발레 양상불' 26명을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발레 〈메시아〉는 양일간에 걸쳐 2000여 명의 관객들이 대거 참여하여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였다. 수익금의 일부는 타민족 대학생을 선정하여 모교 국제여름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8일 저녁에는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출연진과

스템들, 그리고 동창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만찬을 같이 하는 자리를 가지고 감동의 <메시아> 발레 공연에 큰 박수를 보냈다.

5월 17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회칙 개정 이사회 건의와 9월 골프 대회 건, 8월 30일까지 북미주지 회연합회 총회 참석 신청, 정기총회 및 연말파티는 12월 첫 주 일요일 예정 등의 안건이 토의되었다.

5월 25일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가 주최한 서현 숙 이대 의무부 총장환영회에 회장, 이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곡지구에 세워질 1,200 베드의 새 병원 건립 설명이 있었고 건축 모금에 미주 동창들도 동참해주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배계자(의대 66) 동창이 '박 에스터상' 을 수상하였다.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 (사학 66)

정기총회 및 '회원의 날' 개최

3월 3일 이원영(생미 68) 동창 부군 강성권 박사가 그동안 미국 IBM에서 창의적인 연구로 30여 년 동안 업적을 쌓은 공로로 KBS가 주는 제17회 해외동포상 중 과학 기술 부문에서 영예로운 수상을 하였다.

3월 12일 맨하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지난 해 예산과 결산보고, 연례만찬 성과

보고, 장학생 선발 공고 방법, 6월의 이화 바베큐 준비에 관해 토의했다.

4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알제단 대표인 이숙녀(교육심리 61) 동창이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Archive Exhibition(Coloring time)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활동한 주요 한인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 특별전시회로 김옥지(생미 68), 이여란(서양화 63) 동창 작품이 포함되었다.

4월 14일 모교를 포함한 한국 6개 대학 입학공동 설명회가 퀸즈소재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행사를 위해 본교에서 온 김정선 입학처장을 비롯한 모교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학교 얘기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4월 27일에는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방숙자(정외 56) Global Children Foundation 설립자와 전명혜(언어학 대학원 80) 회장의 주도로 UN의 퍼스트 레이디인 류순택 여사를 초청강사로 하는 '회



원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5월 15일에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확대 임원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장학생 선발 공고 방법, 6월의 이화 바베큐 지역 모임, 연례 만찬 준비에 관해 토의했다.

뉴질랜드지회

회장/ 문정아 (제약 82)

'나만의 요리비법' 나누는 모임 가져

지난 4월 9일 금년 들어 첫 모임으로 '나만의 요리비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차 모임은 명사 초청 강연을 듣는 자리로 만들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편 5월 11일 오클랜드 한인회 신임회장으로 김 은희(제약 76) 동창 부군(김성혁)께서 당선되어 함께 축하하였다.

런던지회

회장/ 문현수 (체육 70)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정례모임

3월 4일 대사관들과 박물관이 밀집해있는 거리 인 South Kensington에 강은영 동창이 개업한 식당 가온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정례모임을 가졌다.

2012년 행사 보고와 2013년의 앞으로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자리에는 손선희(영문 66), 홍시내(신



방 01), 이선옥(특수교육 81), 임형의(성악 02), 김 세희(서양화 01), 박혜임(섬유예술 12), 심현주(영문 83), 박영숙(영문 64), 남미경(의직 89), 이동희(약학 81), 정지은(국악 94), 강은영(생미 91), 문현 수(체육 70) 등이 함께 하였다.

멜버른지회

회장/ 안수산 (영문 84)

오찬 나누며 연말 모임 계획해

6월 3일 신은미(사회 99) 동창 자택에 모여 지회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안수산 회장을 비롯해 총 9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오찬을 나누며 연말 모임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나누었다. 한 접시씩 각자 음식을 준비해와 더욱 경쾌웠으며 참석 동창들은



풍성한 점심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보스턴지회

회장/ 김희선 (법학 77)

각 계 후원금 전달과 신좌경 동창 100수 축하

4월 5일 아주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동창회를 활성화 할 것인가?'란 주제로 논의 하며 새 선출이사로 최혜경(조소 74), 후원이사로 김경애(의학 70), 섭외로 최신자(성악 86) 동창을 추대하고 젊은 동창들의 참석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수학 경시 대회 후원과 한미 예술 협회 창단 공연 및 보스톤 한인 합창단의 탈북난민돕기 자선 음악회를 후원하고 이디오피아 장은혜 선교사께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5월 3일 뉴튼에 있는 압구정 레스토랑에서 신좌

경(이화여전 영문과) 동창의 100수를 축하하며 귀중한 덕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 동창은 독립 운동가의 자손으로 조선어학회 사건 등에 가족이 연루되어 많은 수모를 당하였으나 상해 임시 정부를 돋는 등 대한민국 수립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였고 이후 다시 공산당에 의해 온 집안이 몰수와 겁박을 당하여 결국 36세에 부군이 남북되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앙(6대 신앙)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모두 명문대 졸업생으로 성장 시켜 보스톤 지역에서 훌륭히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귀한 덕담과 함께 참석 동창들이 100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도 보여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시드니지회

회장/ 황혜자 (교공 76)

정기모임 및 한명숙 전총리 방문 환영식

5월 11일, 23명의 동창들이 에핑에 있는 스팀보트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다. 오찬 후 에핑 파크



에서 사진 촬영과 타스마니아에 거주하는 윤세순(식영 72)동창의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시낭독이 있었다.

5월 27일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시드니 방문 환영식을 가졌다. 1960년도에서 2003년도 졸업생까지 14명의 다양한 세대의 선후배가 모여, 한동창으로부터 고국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지회

회장/ 송복진 (영문 73)

정기 이사회 및 '이화인의 밤' 개최

3월 23일 문화회관에서 봄 정기 임원 이사회로 33명이 모였다. 김옥자, 김성례 동창이 새 이사로 인준을 받았으며 5월 4일에 열릴 '이화인의 밤' 준비를 논의했다. 4월 20일에는 봄나들이 만보걷기를 열어 12명이 참여, 데스플레인강을 따라 숲길을 걸었고 '우리마을'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정겨운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

5월 4일 문화회관에서 연례총회로 70여명이 참석했다. 윤미혜 동창의 기도와 저녁식사에 이어 소설가 김성례 동창이 '이화인의 궁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서 참석자들이 공감을 얻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인준, 성유나 동창의 차기회장 인준, 구광



자 이사장에게 감사장 증정, 흥명회 동창의 이사장 취임 등이 있었다.

싱가포르지회

회장/ 현수정 (생미 88)

활기 더해가는 동창회 모임

4월 4일 봄맞이 동창회가 리버 밸리의 한 퓨전 일식당에서 열린 데 이어 5월 동창 모임이 5월 2일 클럽 회원인 박지은(특교 95) 동창의 도움으로 아메리칸 클럽에서 있었다. 흑백의 대비된 조화가 돋보인 현대적인 공간에서 만남을 가진 26명의 동창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싱가포르 한인회 수석 총부회장 박정희(불교 76) 동창이 '재외동포를 위한 모국대학 입학 설명회'를 공지하였다. 또한 이날 모임에는 신입회원으로 박춘화(경영 86) 동창이 합류하였다.



애틀란타지회

회장/ 김정희 (약학 79)

신임 회장단 선출 및 부총영사 유복렬 동창 환영회

매월 2째 주일 오후 1시30분에 모임을 갖는 애틀란타지회는 1월 모임으로 조성숙 전 회장의 보고와 감사말씀, 김인옥 회계의 결산 보고가 있었고 신임 회장 인사와 새 임원 소개 및 조성숙 전 회장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또한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전 회장단을 중심으로 후원이사회를 조직하기로 하여 이사회가 발족되었다.

3월 모임에서는 특별히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부임한 유복렬(불교 85) 동창의 인사와 신입회원 환영이 있었다. 유 동창은 최초의 여성 부총영사이다

또한 병리학 전문의인 최형주(의학 79) 동창이 7년 만에 다시 참여하였고 총영사관 행정원인 한지희(전자계산 91) 동창이 처음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사관 근무자인 부군 따라온지 2년 반

이 지나 이제야 참석한 이정언(섬유예술 90) 동창, 불편한 눈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최문숙 동창 등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다.

새 신임회장단으로 회장 김정희(약학 79), 부회장 황영자(약학 78), 총무 김경원(가관 81), 회계 최(김)정원(식영 85), 서기에 송미애(성악 85) 동창이 선출되었다.

오레곤지회

회장/ 김미진 (도예 79)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서 반가운 만남

그동안 지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해 가을부터 동창회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회사한 봄을 계기로 2013년 동창회를 열었다. 동창회 개최 일 공지 미흡과 환절기가 겹쳐 건강 이상 등의 이유로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참석 동창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울려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날 동부(콜롬버스 클리블랜드)에서 이주한 정행자(생미 68) 동창 환영 모임도 함께 열었다. 4월 말 김미진 지회장의 오레곤 도자기협회 전시회 참여가 있었고 다음 모임을 가을에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동창 모임에는 미리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숨은 동창들을 많이 찾아내서 동창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워싱턴디씨지회

회장/ 오혜경 (영문 72)

제 2회 'Walk-a-thon' 연례 행사 개최

5월 1 8일 버지니아 Great Falls에 위치한 Riverbend Park에서 연례행사인 'Walk-A-



'Thon' 을 겸한 야유회를 가졌다. 이번이 두 번째인 'Walk-A-Thon' 을 하기 위해 우천에도 불구하고 약 45여 명의 동창 및 가족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특히 올해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를 주최하는 주최지로서 그 전초적인 행사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오혜경 회장을 비롯하여 전 임원들이 협력하여 행사에 진력하였다. 1부 걷기를 마치고 오찬 후 2부에서는 이정희(종음 89) 동창의 사회로 푸짐한 상품도 나누며 함께 재미있는 오락시간을 가졌다.

일본지회

회장/ 정태영 (생미 69)

세대와 국적이 달라도 '이화 동창' 인연 모임

5월 30일 동경 롯번기에 있는 일식집에서 동창 11명이 모여서 모교를 기리며 모임을 가졌다. 최고

선배인 1942년 문과 졸업생인 사사끼에미(일본인) 동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으며 참석 동창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도 웃음으로 어좋은 분위기를 만들며 이끌어주고 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동창들이 있지만 세대와 국적이 달라도 '이화동창'이라는 인연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모임이다.

클리블랜드지회

회장 / 노희용 (약학 82)

이대 교환학생 자매학교에 후원금 전달

3월 27일 Parma, Ohio 소재 80년의 전통을 가진 이탈리안 식당에서 월례모임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 기관과 한인회 부속기



관인 한글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4월 24일에는 이화의 자매학교인 Baldwin Wallace College에 있는 Student Union에서 동창 10명, 이대 교환학생 8명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선후배간 진솔한 대화와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후원금을 학교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에는 한정심 동창이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과 이대 교환학생들의 행사를 주선하여 주고 있다. 특히 이 날 Trina Dobberstein 부총장이 참석하여 동창회에 고마움을 전달하였다.

5월 월례모임은 North Olmsted, Ohio 소재 Wild Mango 식당에서 12명이 참석하여 대화의 꽃을 피우며 오는 10월에 워싱턴디씨에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희 대선배인 이숙자(영문 47) 교수께서 참석할 예정으로 많은 동창들도 참석하여 의미있는 동창 여

행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작년에 확정한 저희 후원금을 곧 보낼 예정으로 있다.

필라델피아지회

회장/ 이경희 (무용 87)

강습과 강의로 유익하고 즐거운 정기모임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오찬과 함께 선후배 모임을 가지고 꽃꽂이 강습을 받는 등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3월 모임에서는 원로 동창의 부군께서 해박한 상식으로 좋은 강의를 들려주었고 5월은 회계 전문인을 강사로 하여 상속, 중여, 노후자금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6월에는 동창 댁에서 쿠킹 클래스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선배들의 후원과 후배들의 협조로 즐거운 모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교소식

이화창립 127주년 기념식 개최

모교는 5월 31일 대강당에서 '창립 12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선옥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당대의 역사적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미래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해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라고 이화의 지향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Top 5 사업 등 다양한 연구교육지원프로그램 발굴·운영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레지デン셜 칼리지 제도 등 선진화된 학부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세계를 향해 지적·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대학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이화공동체의식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히고, "한국을 넘어 세계의 이화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에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선옥 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상 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주한대사 및 전 현직 국회의원, 이화 동창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장 등 교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대학 합창단의 축가와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 표창이 진행됐다.

이어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및 제9회 '이

화학술상' 시상이 거행됐다. 지난 1995년부터 등장 또는 모교에서 장기간 봉직한 분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이화정신의 귀감이 된 분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시상식에는 윤후정(법학 55) 명예총장, 장화인(교육심리 69년)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 현정은(사회 76) 현대그룹 회장이 수상했다.

남경희 교수(철학)는 서양고대철학, 사회철학, 분석철학, 윤리학은 물론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분석·교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업적을 인정받아 제9회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대학 최초 글로벌 홍보관 '이화웰컴센터' 오픈

창립 127주년을 맞아 국내 대학 최초로 홍보관 '이화웰컴센터(Ewha Welcome Center)'의 문을 열고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미국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해외 명문대에서 방문객 대상 홍보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 대학 중에서는 모교가 최초다.

5월 31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이화웰컴센터는 학교를 방문하는 동문, 국내외 방문객, 중·고등학생,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이고 단일화된 캠퍼스 안내 기구이자 글로벌 홍보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선옥 총장은 개관식 인사말을 통해 "이화웰컴센터는 이화를 찾는 여고생들, 예비 이화인에게는 좀 더 다가가는 이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문에게는 학교와의 지속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는 소통의 '게이트웨이'가 되고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는 이화의 '프론트 도어' 이자 이화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홍보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선옥 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상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등 200여명의 교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화웰컴센터는 시범 운영에 이어 6월 10일부터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2013 라이덴 랭킹' 국내종합대학 1위

모교가 '2013년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라이덴랭킹은 세계 500대 대학 국제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순위로 본교는 2012년 종합대학 2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는 1위로 뛰어오르며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라이덴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매년 세계 500대 대학이 2008~2011년 발표한 논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0%의 논문 비율을 집계한 평가지표로 5개 학문 분야를 나누어 총점을 산정하고, 대학의 규모를 반영해 연구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이덴랭킹이 높을수록 대학의 전체 발표 논문 중 수준 높은 논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인용 빈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이 9.1%로 포항공대와 카이스트(KAIST)에 이어 국내 3위를

기록, SKY를 제치고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모교는 2011년부터 교내 연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본교를 세계적 선도대학으로 이끌어나갈 특화 연구 분야 발굴을 위해 3년간 연구비 100억 원을 투자하는 'Ewha Global Top 5'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학분야 우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세계적인 화학종합그룹 솔베이(Solvay)와 2011년 산학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2,1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기초과학연구단(IBS)을 통해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정부 지원으로 기초과학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향후 더 높은 연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총장은 "이화여대 교수진의 연구력에 대해 정확한 질적 평가를 받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으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부자명예의전당’ 제막식 개최

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5월 9일 ECC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ECC 지하 4층 다목적홀에 위치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Ewha Donor's Wall)'은 '나눔의 빛'이라는 컨셉으로 전체 기부자 18,733명의 이름을 담은 '디지털 월(Digital Wall)'과 고액 기부자 221명의 이름을 새긴 '아날로그 월(Analogue Wall)'로 구성됐다. 모교는 올해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그뜻을 깊이 새기기 위한 특별한 예우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 공간에는 고액 기부자뿐 아니라 '선배라면 만원 이어 달리기' 캠페인으로 소액 모금에 참여한 젊은 동창들까지 한명 한명의 이름을 모두 새겨 큰 금액의 후원뿐 아니라 작은 나눔도 소중히 생각하는 이화의 정신을 담았다.



우울증

밖은 화창한데 제 마음은 왜 자꾸 더 어두워져 가나요?

임원정 / (의학 86) 이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55세의 매우 교양 있는 가정주부가 내원하였다. 한두 달 전부터 이상하게 밥맛도 없고, 잠도 안오고 무얼 해도 의욕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뭐라 콕 찍어서 힘든 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에 뭐가 달린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낮 시간에 괜히 서글픈 마음에 울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친구라도 만나러 나갈까 하다가도 화창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겪은 사춘기가 다시 오나 싶기도 하면서 쓸쓸히 웃는다.

환자는 스물네 살 꽂다운 나이에 7남매의 장남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대학 시절에는 문학가의 꿈을 키우기도 하였으나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 뜻에 따라 선보고 결혼하였다. 결혼 후 친구

들 당하는 정도의 시집살이를 했고, 다행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능력있고 자상한 남편 덕분에 큰 고생 안한 만족스런 삶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서른 살 큰 딸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가서 여름에나 잠깐씩 들어오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3년 전 폐경이후 이상하게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팔다리도 저린 느낌이 들면서 부쩍 예전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세 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다. 큰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아무 흥미나 의욕이 없고 무엇을 해도 재미있지가 않으며, 불면, 식욕부진의 증상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유쾌해 보이고 날이 화창할 수록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면서 잠만 오고 의욕 없이 아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계절성 우울증도 있다.

여성들의 인생은 남자들의 그것에 비해 유난히 치루어야 할 일들이 많다. 초경, 임신, 출산, 폐경 등 인생의 각 고비고비마다 호르몬이 요동치는 경험들을 해야 하고, 요사이에는 마치 통과의례처럼 폐경전후에 오는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공통적으로 보면 성격이 고지식하고 양심적이며 항상 감정을 억제하고 할 말 못하고 까짓거나 하나 참으면 되지라고 믿는 사람들에서 더 흔하다.

불면증과 고혈압, 중풍, 당뇨병, 비만, 관절염 등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염, 만성 위염, 위궤양, 두통, 귀울림 등의 신경성질환과도 밀접하다. 또한 마음의 병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심장 질환이나 위식도 역류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치료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신체 부작용도 없고 습관성의 우려가 전혀 없는 우울증 치료제들이 개발되었고, 미국에서는 항우울제를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제안이 나올 만큼 안전한 약들인데, 우울증 치료제 복용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쯤 지나면 과거의 씩씩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또 한 정신 치료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얹눌려온 억울함, 분노, 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건강 백세 시대에 본인 수명의 반밖에 안 살았는데도 벌써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듯한 여성분들이 다시 화창한 이 여름을 만끽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일러스트 출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물고기인 나의 'Ewha'

석정자 / 성악 67, 1998년도 올해의 이화인



미국 Juilliard 음악원 수료,
이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교육철학 전공 수료
교육경력 40년, 제7회 부산음악상 수상,
대통령표창(녹조근정훈장) 외

1967년 2월 이화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던 나에게 1998년 3월 총동창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져왔다. 5월 31일 모교 창립 112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이화인(성악과)'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졸업 후 31년 만에 만난 침으로 기쁜 소식에 가슴이 떨렸다. 아울러 이 행사에 관한 예비 모임이 있으니 동창회관으로 모이라는 전갈이었다.

나의 마음은 들뜬 기분과 인생 삶의 늦게 찾아온 행운의 소식에 기쁜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힘들었다. 내 생각엔 '서울에 사는 현명한 다른 동창이 몇 명이나 있거늘... 어찌 부산에 살고 있는 내가 뽑혔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다.(예비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올해의 이화인을 선정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영광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 점수로 계산해서 선정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직업생활 연수 및 학위 소지, 남편, 자식 등 본인을 비롯한 가족이 총 망라된 점수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아! 기쁘다. 졸업 후 바쁘게 진실 되게 살았지
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줄이야! 모교, 친구, 스승



님들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정해 줄 줄이야!”

동창의 날 행사 후 총장 공관에서 배풀어진 다과 회에서 모교에서 총동창회와 올해의 이화인들에 게 의견을 물어왔다. 그 중에서 한 둘은 이화는 여자대학인데 요즈음 세상의 흐름이 남녀공학 주 세이니 오늘 이런 모임에서 동창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똑똑한 선후배 동창들의 의견은 남녀공학 의견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결국은 반대의견이 우세로 결론났다. 그 후 사회자가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며 나를 지목하였다. 나는 사회자에게 다른 유명 동창님에게 권하도록 사양을 했으나 꼭 한 말씀 하라는 부탁에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다.(어쩐지 오늘 좌석이 총장님 옆이라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나는 얼떨결에 평소 마음 속에 간직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던 ‘이화인의 철학’을 떠올리며 이화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진실된 생활을 이야기하고 끝으로 참석한 동창들께 물었다.

“이화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물고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들 “고래, 상어, 백상어” 등등으로 대답했다.

나는 한번 더 강조하여 영어로 물었다.

“What’s the largest and smart fish in the world?”

그 대답은 “It’s Ewha”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이어서 얘기했다. 고래가 먹이를 구하러 나타날 때 작은 멸치나 고등어 같은 고기들이 상대방 고기보다 더 크게 무리를 만들어 고래를 이기려고 하는 생존경쟁의 법칙을 말했다. 약하고 힘없는 여성이지만 우리 이화가 지혜로 뭉치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멋진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면서 “제가 한번 더 선창할테니 모두 합창하여 대답합시다.”고 제안했다.

“What’s the largest and smart fish in the world?”라고 선창을 하니 “It’s Ewha!” “It’s Ewha!” “It’s Ewha!” 라며 모두들 큰소리로 합창했다. 곧 큰 박수가 흘렀고 내 좌석으로 돌아와서 앉으니 옆에 계시던 총장님께서 “그 좋은 말씀 나도 학생들에게 써먹어도 되겠지요?” 라며 농담을 하시기에 우리는 웃었다.

그 날은 나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이경순(서양화 50)

5월 15일~21일까지 서울미술관에서 국전 입상자 초대전을 열었다.

윤후정(법학 55)

이대 명예총장이며 이화학당 전 이사장인 윤 동창이 모교 창립 127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다.

허미자(국문 57)

최근 '나의 스승 어머니(보고사)'를 출간했다.

정연희(국문 58)

소설가인 정 동창이 장편소설 '거기 너 있었는가(신 하출판사)'를 새로 펴냈다.

김은자(국문 60)

지난 3월 수필가인 김 동창이 창작집 '흔적(문화마을)'을 출간했다.

도문희(서양화 61)

초대전을 4월 3일~9일까지 서울 미술관에서 열었으며 4월 8일~13일까지 이화 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채림전'에도 출품하였다.

김영교(영문 6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동창이 2013 미주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김인자(약학 63)

1995년부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연재해 온 칼럼 124편의 칼럼을 모두 5부로 나누어 주제에 따라 정리한 수상집 '노마드에 부는 바람'을 출판했다. 홍

승주 교수는 이 수상집을 "동서양의 박식한 지식과 한국 고유의 이미지, 과학에 이르는 세계까지 소명의 메시지를 강렬한 필치로 풀어나갔다"고 극찬하였다.

윤수영(국문 65)

4월에 수필집 '조촐한 기쁨으로(소소리)'를 출간했다.

최구자(서양화 65)

3월 20일~26일까지 선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성혜(영문 66)

미국 스카랫 칼리지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밀워키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김 동창의 11번째 저서 'The Way Out(영문판)', '숨겨진 탈출구(한글판)'가 최근 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배계자(의학 66)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배 동창이 연간 2천 여 명의 무보험자에게 무료로 유방 암 검진과 무료수술 안내를 해온 공로로 모교에서 수여하는 박에스더상을 5월 25일 LA 소재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수여받는다.

김초원(약학 68)

98년도 올해의 이화인인 김 동창이 2013년부터 대 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성기순(설예 69)

미주한국민화협회 회장인 성 동창이 UC 어바인 동 아시아 학과에서 15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행사의 일환으로 2월 8일 UC 어바인에서 열린 설날맞이 행사

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통민화에 관하여 강의했다.

이영희(생미 68)

5월 1일~6월 19일까지 윤현상 갤러리에서 그룹전 'Atmosphere' 을 개최한다.

정효정(영문 68)

미국 LA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동창이 2013년부터 임기 2년의 미주시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한숙(국문 69)

작년 4월까지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및 <에세이 문학> 발행인으로 4년 동안 일해온 조 동창이 3월 26일 수필집 <네프로네피스가 있는 풍경> 출간으로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전효숙(법학 73)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며 전 헌법재판소장인 전 동창이 4월 28일 대법원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보희(동양화 74)

이대 교수인 김 동창이 5월 8일~6월 9일까지 학고재에서 'Towards'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심인자(조소 74)

개인전 '육순의 회한' 을 5월 16일~30일까지 부산 수가화랑에서 가졌다.

이영이(사학 74)

6월 14일~18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가진 서예가 이 동창이 최근 경기미술서예대

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홍희(불문 70)

서울시립미술관장인 김 동창이 4월 16일 세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제인 '카셀도큐멘타 14' 의 디렉터 선출을 위한 선정위원에 위촉되었다.

이송희(사학 75)

지난 3월 신라대 부총장에 취임하였다.

정귀인(무용 79)

부산대 예술대학 학장인 정 동창이 4월 27일 세계 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WDA-KOREA)으로 2013 유네스코 제정 '세계 춤의 날' 기념 행사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였으며 2일 후 부산대에서 50 여 개의 무용단 600여 명의 무용수가 참가하는 기념 공연을 하였다.

명인서(국문 77)

지난 4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이다.

이나경(서양화 77)

서호 갤러리에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이화순(사학 77)

지난 5월 '과거에서 날아온 메시지(민속원출판사)' 를 출간하였다.

정현숙(서양화 78)

4월 21일~5월 21일까지 진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조기주(서양화 79)

4월 24일~30일까지 The K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동 창 소 식

가졌다.

문미란(법학 80)

총동창회 임원인 문동창이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해경(동양화 80)

5월 15일~27일까지 갤러리 가이아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장옥주(법학 81)

최근 장동창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계영(교육 82)

4월 12일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이며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을 역임한 이동창이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었다.

정용순(생미 82)

'정용순 개인전' 을 5월 29일~6월 4일까지 갤러리 토포하우스에 가졌다.

김영(영문 83)

(주)사이넥스 대표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를 역임한 김동창이 '동그라미 재단(舊 안철수 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남연숙(도예 86)

3월 15일~30일까지 SM Store에서 개최하는 Chamorro Month 를 기념하는 Art 전시회에 초대되어 작품을 전시했으며 3월 1일~8일까지 제 8회 팜여성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노정희(법학 86)

판사인 노동창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되었다.

박미선(동양화 86)

5월 8일~14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양정숙(법학 87)

변호사인 양동창이 최근 대한변호사회 감사로 선출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성 인권운동의 큰 별 박영숙 동창 타계

향년 81세로 지난 5월 17일 동그라미재단 명예이사장인 박동창이 타계하였다.

1956년 영문과를 졸업하고 '여성 운동계의 대모'로서 여성환경연대 유품지기, 미래포럼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고문을 맡아 활동해왔으며 대통령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위원장 및 제13대 국회의원,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하은희(의학 87)

4월 29일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서울지역 1호 근로자건강센터장으로 예방의학, 산업의학 전문의 하동창이 취임하였다.

김영주(의학 88)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김 동창이 4월 20 일~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국대표 60여 명이 참석 한가운데 열린 WHO의 PREBIC (Preterm Birt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미팅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

박은영(생미 88)

5월 5일~ 15일까지 '박은영 개인전' 을 온리 갤러리에서 열었다.

김재영(체육 89)

3월 26일 김 동창이 성남 YMCA 제 5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성남 YMCA는 1981년 2월 22일 창립 된 이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투명하고 깨끗한 성남시 만들기,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건강한 청소년 육성, 대안유아교육,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해온 기독청년체이다.

이주연(동양화 90)

'Window of Being'이라는 주제로 3월 21일~ 31 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희준(약학 90)

극작가인 이 동창이 극본, 작사를 함께한 뮤지컬 '마마돈 크라이' 를 3월 9일~ 5월 26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상연했다. 연출은 부군 인 김운기 씨가 하였다.

최희진(영문 90)

4월 1일 스와치 그룹 코리아 주력브랜드인 오메가의 브랜드매니저인 최 동창이 스와치코리아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황진선(경영 90)

제일모직 상무를 역임한 황 동창이 5월 1일 코웨이 창사 이래 첫 여성 임원인 코스메틱사업본부장인 전무로 영입되어 활동 중이다.

황동창은 베스트셀러였던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의 저자이다.

오경아(서양화 91)

4월 2일~ 8일까지 최정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유성희(신방 91)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인 유 동창이 지난 5월 7일 제4기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소영(조소 91)

'이소영 개인전' 을 4월 24일~ 5월 12일까지 가비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전혜정(법학 91)

최근 국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최정현(국문 91)

KBS 일일드라마 '당신뿐이야' 를 비롯해 부자의 탄생', '청춘예찬' 등을 집필했던 방송작가 최 동창이 4월 24일 첫 방송한 KBS 수목드라마 '천명' 을 20 부작으로 집필하였다.

동 창 소 식

이선주(언론홍보영상 94)

로레알 코리아 국내 매니저였던 이 동창이 5월 1일 자로 로레알 브랜드 키엘의 뉴욕 본사 국제사업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 발탁되었다.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매니저가 전 세계 마케팅을 지휘하는 본사 부사장 자리에 발탁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문선(신방 96)

5월 16일 부로 기획재정부 첫 여성 과장으로 장 동창(행정고시 39회)이 임명되어 3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책임지게 되었다.

권수연(조소 97) 오수연(조소 98)

이지향(조소 98) 최도영(조소 98)

동창 4명이 함께 만든 그룹 작은방이 '다시, 봄' 이란 주제로 4월 1일~30일까지 까페 봄에서 전시를 하였다.

김초희(동양화 04)

'Blooming moon'이라는 주제로 4월 24일~5월 2일까지 AKA space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최은주(한국음악 04)

이화여대, 단국대, 추계예술대에 출강하며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인 최 동창이 5월 15일 국립국악원 우연당에서 제9회 '최은주 해금독주회'를 가졌다.

구윤경(관현 05)

아산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인 구 동창이 5월 8일 금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다.

강수진(동양화 09)

3월 25일~30일까지 이화여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박선양(동양 10)

5월 22일~28일까지 57th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13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창이 펴낸 새책



박혜원(국문 81)

박혜원 지음 / 문학나무

비상하는방

동단 이후 발표했던 단편소설 10편을 모아 엮은 소설집. 작품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 없는 뿌리 뽑힌 인간 군상들로, 역사의 수레바퀴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낙오자이거나 가정의를 혹은 여성의 글레에서 자유롭게 꿈꾸는 여성들이다. 이들을 파괴시키는 거대 공룡은 현대 자본주의를 질문명이거나 남성이다. 마른 나무 같아 무미건조하고 요약적인 표현, 치밀하게 다층적 의미를 감싸고 있는 짧은 문장 등 새로운 소설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양해경(사회 77)

양해경 글 / 권승이 그림 / 파란자전거

소녀소년 평등탐구생활 양성평등 이야기

착한 사회를 위한 탐구생활 시리즈.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에 힘쓰고 있는 저자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할 항목들을 선정해 양성평등에 대해 쉽고도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이다.

노진희(영문 00)

오스틴 클레온 지음 / 노진희 옮김 / 중앙북스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원작자인 오스틴 클레온(Austin Kleon)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고 있는 글 쓰는 아티스트이자 창의적이며 기발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다. 이 책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주 단순한 방법과 적은 노력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굳은 머리 속에서 고집어 낼 수 있다고 전한다.

노진희(영문 00)

노진희 지음 / 알루스

서른다섯까지는 연습이다.

25살부터 시작된 숨한 방황과 후회,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는 저자는 그녀를 카피라이터로 살게 한 유명한 카피 고전들을 인용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자신만의 경험담을 전한다.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서른 살의 터널만 지나면 인생의 길을 찾게 될 줄 알았지만 점점 더 꼬깃꼬깃해지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막막하고, 답답하고, 쓸쓸한 이들에게 '내 앞길 여는 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축하합니다



박정희(가정 62) 동창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블루환경교육센터 박정희 이사장이 6월 14일 조선일보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조선일보 환경대상’의 환경교육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동창은 서울 YWCA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오로지 환경교육 활동에 몸담아오며 환경 전문가 양성에 진력하며 우리나라 환경교육 기반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배용(사학 69) 동창 5.16 민족상 수상

전 이화여대 총장인 이배용 동창이 5월 1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단법인 5.16민족상 시상식에서 제 48회 사회 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한국선진화포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히 사회·교육 부문에서 국가 발전과 국위 선양에 공헌해 왔다.



변영섭(사학 71) 동창 문화재청장 취임

3월 18일 문화재청의 반세기 역사에서 여성으로서 첫 수장에 변영섭 동창이 임명되었다. 고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인 변 동창은 한국미술사학회장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서현숙(의학 73) 동창 ‘한독 여의사 지도자상’ 수상

4월 2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4회 ‘한독 여의사 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이 대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인 서현숙 동창이 방사선 종양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



김자혜(사회 74) 동창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에 선출

전문 소비자단체로 1983년 창설한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제 12대 회장으로 김자혜 사무총장을 선출하였다. 김동창은 25년 간 소비자운동을 펼쳐왔다.



한춘희(생명과학 75) 여성중앙회 회장 취임

지난 3월 6.25전쟁 미망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돋기 위해 창립한 (사)여성중앙회 제 14대 회장에 한동창이 취임한 후 5월 31일 60주년 기념식을 여성 플라자 국제 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양선희(교육 87) 동창 최은희 여기자상 수상

5월 15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양선희 동창이 제 30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았다. 1990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기자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윤화진(언론홍보영상 91) 동창 '올해의 에디터상' 수상

3월 중순 세계 최대의 국제뉴스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의 '올해의 에디터상' 을 윤화진 동창이 수상하였다. 한국인의 수상은 처음으로 2012년 아시아 뉴스 챔피언로서의 공로를 인정, 아시아 부편집장인 윤동창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2 대바자회

이화명물장터 대 바자회가 열립니다

추석 명절 준비 알뜰 구매 기회

9월 11일(수)에 이화교정에서 흥겹고 푸짐한 '알뜰장터'가 열립니다.
총 60여 개의 부스 안에 최고의 상품들이 동창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각대학, 대학원, 과, 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큰 바자회에서 알뜰구매와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